순간의 부주의에 '생명의 숲' 잿더미로

■산불예방!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4월에만 산불 162건 발생, 숲 3330ha 사라져

대부분 입산자·담뱃불·성묘객 실화가 원인

화기 휴대 금지…논밭두렁 태우기 안해야

산행이 잦은 봄철은 그 어느때보다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해 장성에서 발생한 산불을 산림청 헬기가 투입돼 진화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남쪽에서 시작된 매화, 벚꽃 등 봄의 전령사는 어느덧 우리나라 전역에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겨우내 움츠렸던 나무들도 이제 막 겨울눈을 움트고 있다. 여기저기 화사한 봄의 전령사 앞에 상춘객들도 웃음꽃이 가득하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상춘객들에게는 더없이 반갑고 기다려온 4월이겠지만 필자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말하고 싶다. 바로 매일 도처에서 일어나는 산불로 생명의 싹을 틔워보지도 못하고 숯덩이가 되어버린 이 땅의 초목들에게, 그 초목을 지켜내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산림공무원들에게 4월은 잔인함에 몸서리치는 달이다.

최근 10년 동안 매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평균 523건, 3,726ha의 숲이 사라졌다.

이 중 발생건수의 31%, 피해면적의 89%에 달하는 162건, 3,330ha의 산불이 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매년 4월에만 하루 평균 20여건의 산불이 발생해 올 봄을 기다려온 수많은 나무들이 사라지고 숲 속의 여러 생명들도 그 보금자리를 잃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숲,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이 숲이 다시 살아나려면 최소 50년, 아니 10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지난 2000년 4월 여의도 면적 28배에 달하는 산림을 집어삼킨 동해안 산불 피해지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아픈 기억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 진화용 초대형 헬기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같은 첨단장비를 마련하고 수 천명의 산불전문진화대와 산림보호 감시인력을 운용하여 취약지역의 산불예방과 계도활동을 펼치고 초동진화를 위한 매서운 준비태세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인력과 첨단장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산불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왜 해마다 뼈아픈 상처가 되풀이되는가? 산불발생의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39%)와 논밭두렁 소각(18%)이 절반이 넘는 57%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쓰레기 소각 및 담뱃불 실화가 각각 9%, 성묘객 실화가 6%였다.

올해는 잦은 강우로 산불발생의 빈도는 예년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었지만 두말할 나위 없이 3~5월은 대지가 매우 건조하고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메마른 이 때, 산림 인근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산림에 불쏘시개를 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땀과 노력으로 가꾸고 지켜온 우리의 산림을 후손에게 온전하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산에 갈 때는 아예 화기를 휴대하지 말고, 담배꽁초는 꼭 불씨를 끈 후 버리고,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입산통제구역에는 들어가지 말 것을 국민 모두가 지켜 주길 당부드린다.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는 사소하고 간단한 일들이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녹화에 성공한 사례로 인정받는 우리의 산림은 비단 현세대의 것만이 아니다. 수십 년간 정성들여 가꿔온 산림은 우리의 후손들과 함께 누려야 할 공동의 재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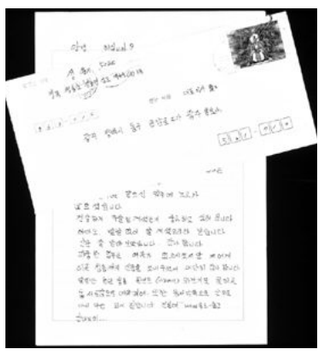
우리의 실수와 부주의로 인재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봄의 전령사를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

▲윤병현·서부지방산림청장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청송 감호소까지 배달되어 온 광주일보를 읽고 하루하루 속죄하며 새로운 삶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가 광주일보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배어난다. 보내온 편지 원문을 싣는다.



안녕하십니까?

나무가 미련없이 잎을 버리듯 더 자연스럽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의 높은 산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낮은 언덕도 넘어야하고 하나의 큰 바다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작은 강도 건너야 함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삶의 깊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찮고 짜증스럽기 조차한 일상의 일들을 최선의 노력으로 견뎌야 한다는 것을 지난 겨울에 깨달았습니다.

그간 불철주야 맡으신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건강하게 무탈히 계셨는지 궁금하고 심려됩니다. 아마도, 별탈없이 잘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신문 잘 받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중한 업무로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저에게 이곳 청송까지 신문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로만 듣던 청송 한번도(사회에서) 와보지 못한 곳 동서로 강으로 에워싸여 또한 동서남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마치 무슨 요세 같습니다. 전설에 빠삐용도 울고 간다는데……

이곳에 와서 생활해 보니 어렵고 힘든점이 하나 둘이 아니지만 제가 지은죄가 있으니 죄를 씻는다는 마음으로 단 하루라도 단 한시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회개하고 반성하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중형으로 광주, 목포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 많이 보고 싶네요.

어찌 다 말로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과오를 저지르곤 하는데 저도 순간의 실수가 결과적으로 크나큰 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하다가 그런 일이 생겨 버린 것이니 이렇게 될줄이야.

구구절절 얘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청송에서 3월30일.

정훈상(가명)

클릭! 맛집

캬~ 소주 한잔에 쫄깃한 맛 일품

비타민·철분 풍부 웰빙식품 각광…착한 가격에 기쁨도 두배

■화순읍 '청학동 황소곱창구이'

뜨거운 불에 올려 자글자글 구운 소곱창을 씹으면, 어찌나 고소한지 입 안에서 참기름 한 병 쏟아져 나온다.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8-4번지, 성심병원 옆의 청학동황소곱창구이(업주 민경오)는 매일 도축한 한우의 곱창만을 내놓기 때문에 더욱 맛이 신선하고, 고소하다.

소곱창은 돼지곱창과 손질 방법이 다르다. 돼지곱창은 냄새 나는 이물질을 잘라내고 물로 씻어내는 거라면, 소곱창은 물을 쓰지 않고 기름을 다듬는 것. 소곱창에 붙은 기름이 많으면 느끼하고, 적으면 고소한 맛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쳐내는 것이 맛의 비결이다.

나주 영산포축협에서 10년 동안 소 부산물 처리를 담당한 주인장이 먹기 적당하게 소곱창을 다듬는다. 어찌나 싱싱한지 표면에 윤기가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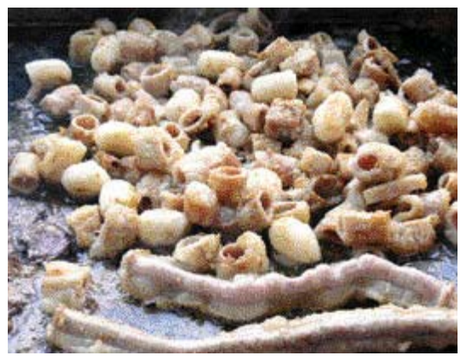
곱창은 고기가 두꺼워 일반인이 굽기 힘든데, 이 집은 주인장이 뜨거운 철판에서 초벌 구이를 해 준다. 철판에 초벌 구이를 한 뒤 수정불판에 올려 손님상에 내놓는다. 수정으로 만든 불판은 기름의 튀지 않아 먹기 편하다.

버섯과 떡 등을 함께 올려주면 곱창에서 나오는 기름이 배여 고소하다.

미나리 팽이버섯, 송이버섯 등의 야채와 육수를 넣고 끓인 곱창전골은 매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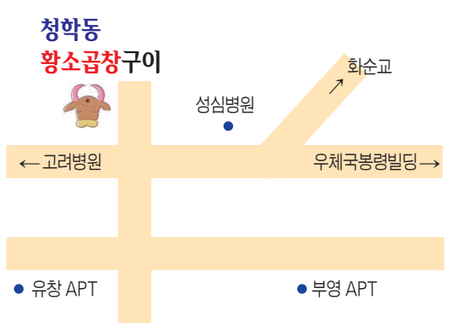
곱창은 소금기름이나 양념장을 곁들인 생부추에 싸먹으면 더욱 맛있다. 곱창은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해 영양 면에서도 갈비 등 그 어떤 부위보에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소곱창구이 1만2천원, 곱창전골 대 2만8천원, 중 2만3천원. 문의 061-375-3338.

/글·사진=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곱창구이〉

■찾아가는 길



한국부동산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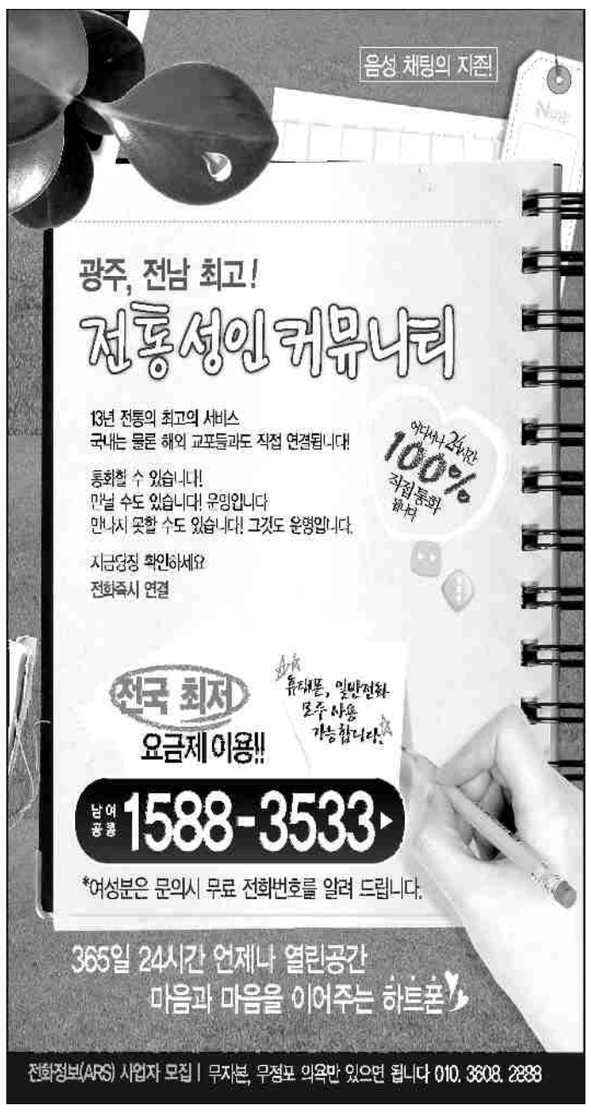
구 함

◉삼거동 - 5000평이상/관리지역/차량진입가능
◉연산동 - 요기동(20-25만원)/800평정도/투자용(그린벨트상관없음)
◉벽진동 - 창고용지/500평정도
◉마트자리 - 10억(현금6억)

매 도

◉삼거동 - 2만3천평/상담후결정
◉선암지구 - 1850평/40억 /대로접
◉중흥동 - 200평/대로접(100%대출가) 상담후결정
◉산수동 - 215평/6억5천/대로접(100%대출가)
◉내방동 - 280평/7억8천/대로접(100%대출가)
◉담양대덕면매산리 - 3000평/물류센터적합/대로접(100%대출가)
◉우산동 (광송간 도로) - 800평정도/65만원(평당)
◉광산구 신용동 - 1500평/50만원 도로접 (물류창고 적합)
◉만평 풍암지구 수완지구
◉상무지구 주유소 - 약 350평/매매11억/공시지가(5억 7천만원)

한국부동산 컨설팅
서구청 맞은편(1층 • 2층)
010-3286-6680, 366-7935
<아파트, 분양권, 대물상담>



토 지 매 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I.C 입구)
▷ 동신대 ~ 나주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선거차량

음향차량,LED차량(1.5t,2.5t,5t)

선거홍보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82-2285